신화창조 “JUMP”

창조적 도전으로 이룩한 문화와 품질의 컨버전스

2008

㈜예감 대표이사 김경훈

예술적감수성

Copyright © 2008 by YEGAM

❖Introduction

목차

1. ㈜예감 및 “JUMP”소개

2. “JUMP” 상품개발 기획 및 전개

3. “JUMP”의 성공요인

: 문화상품에서의 품질의 중요성

4. “JUMP”의 비전 및 향후 전략

1. ㈜예감 및 “JUMP”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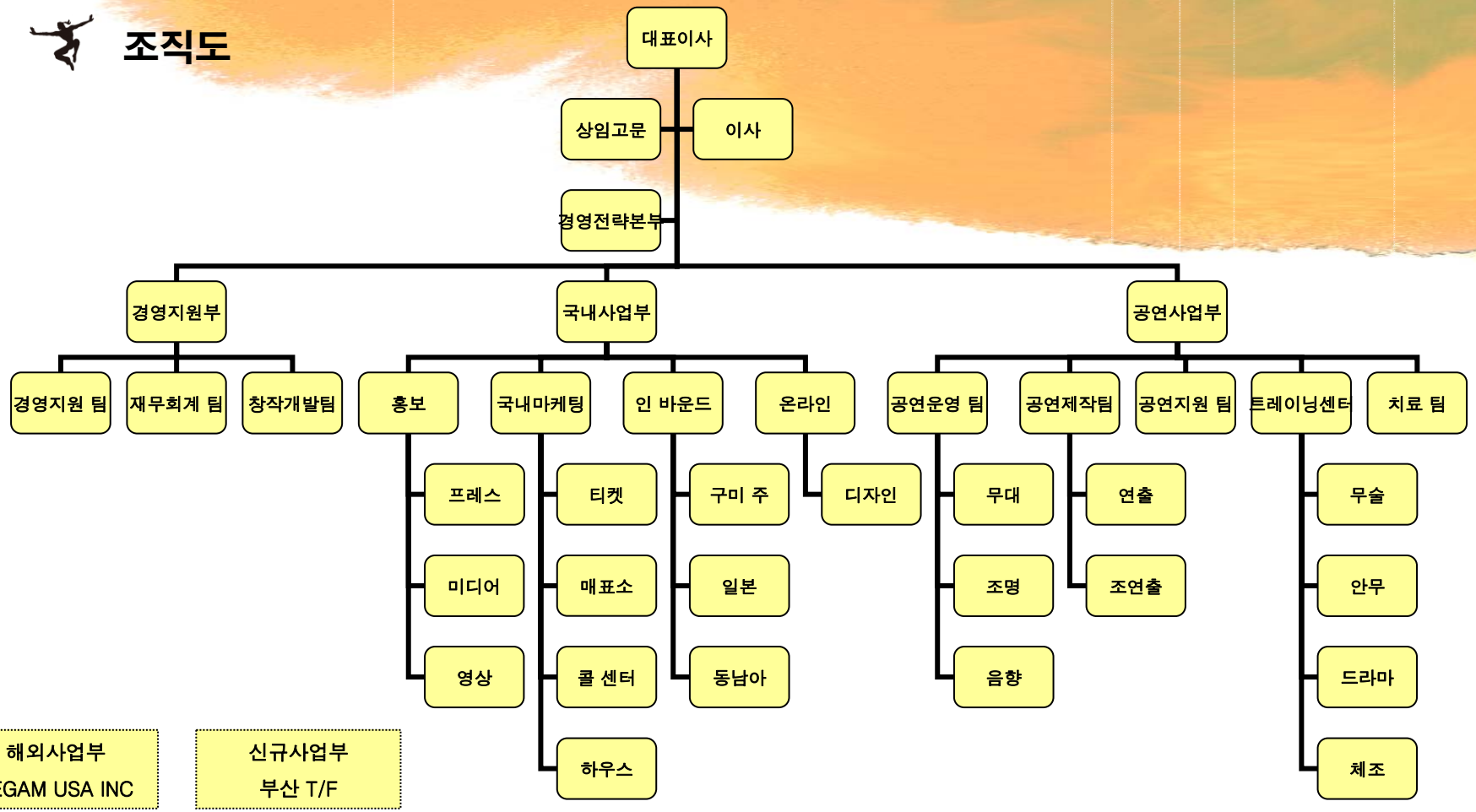
1. ㈜예감 및 “JUMP”소개

회사일반사항

회 사 명	(주)예감
설 립 일	2003년 3월 17일
대 표 이 사	김 경 훈
종 업 원 수	230명
본 사 주 소	서울 종로구 관철동 33-1 씨네코아 빌딩 9층
홈 페 이 지	www.hijump.co.kr
주 요 사 업	▶ 공연예술 관련 머천다이징, 음반, 출판사업 ▶ 퍼포먼스, 뮤지컬, 연극, 콘서트 제작 및 투어공연 ▶ 공연예술 관련 매니지먼트사업 ▶ 마케팅 컨설팅 사업 외

1. ㈜예감 및 “JUMP”소개

조직도



해외사업부
YEGAM USA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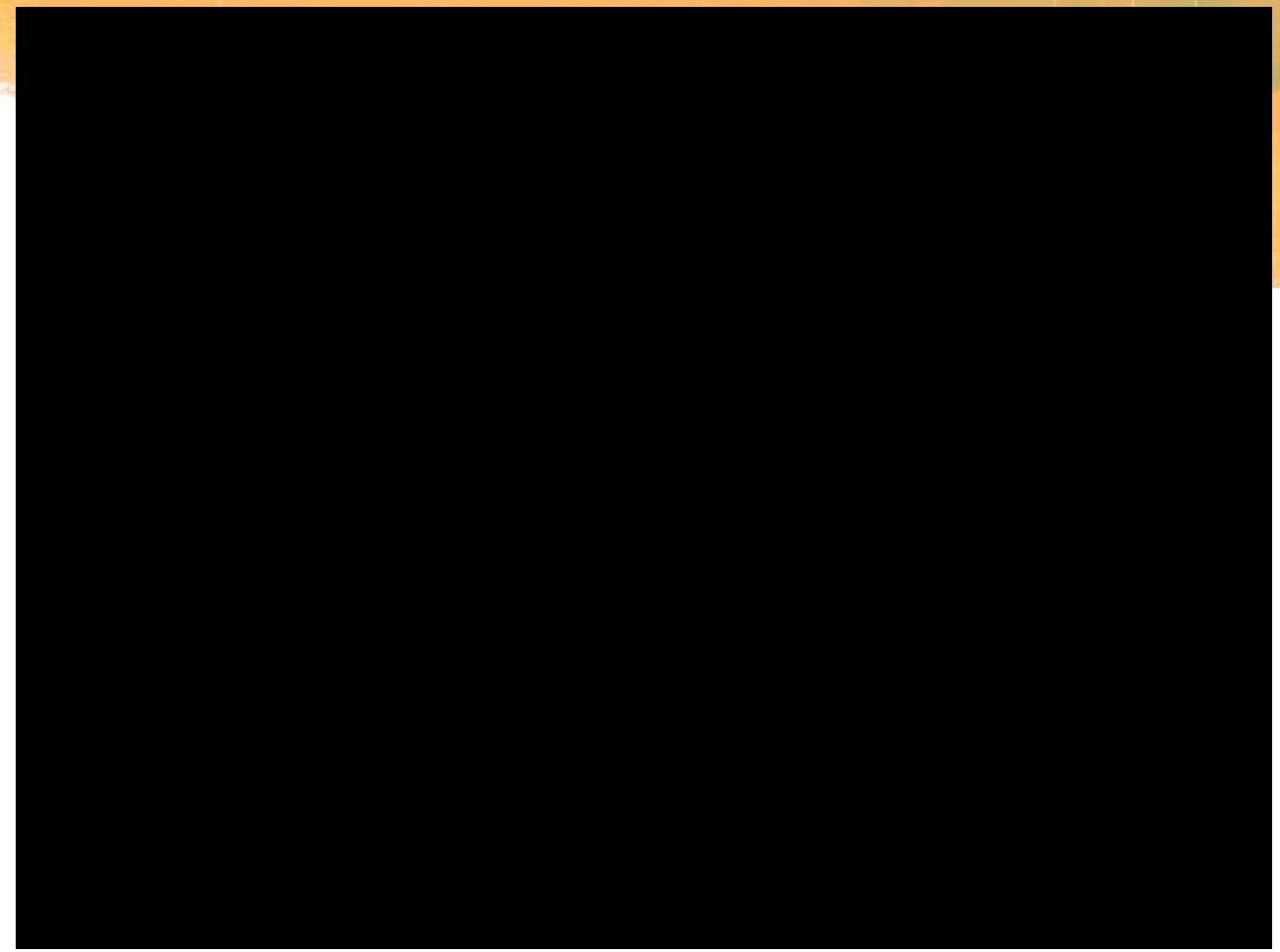
신규사업부
부산 T/F

1. ㈜예감 및 “JUMP”소개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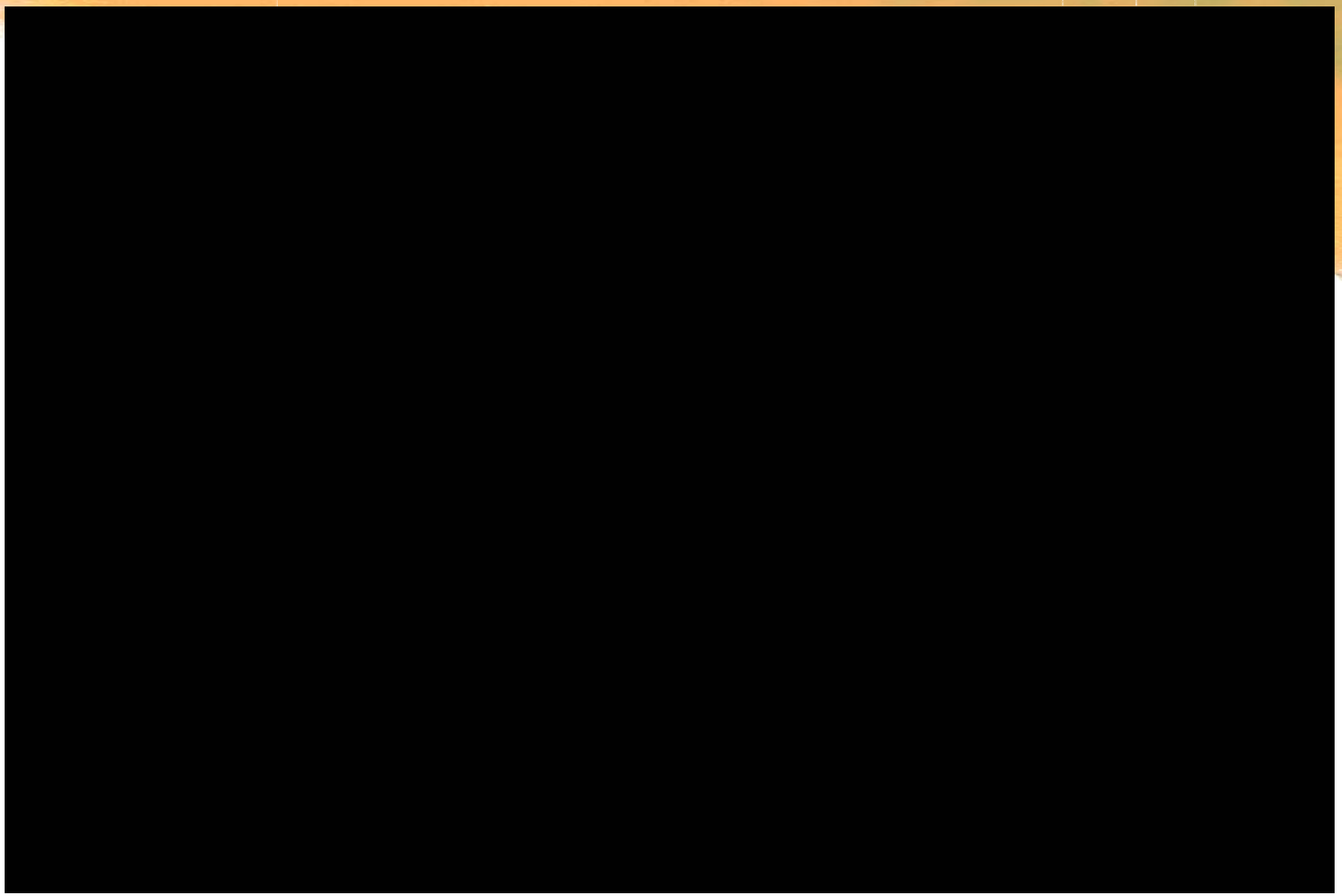
✓ 2003년	03월	문화 예술제작 컴퍼니 (주)예감 설립
	07월	**JUMP 초연**
✓ 2004년	06월	아름다운 재단, 굿네이버스를 통해 좌석 나눔 등 사회공익 활동 시행
	12월	2004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외신홍보상 수상
✓ 2005년	**08월**	**Edinburgh Fringe FESTIVAL (<JUMP> 박스오피스 1위)**
✓ 2006년	02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Peakcock Theatre 공연(Sold Out)
	05월	세계적 매니지먼트 사 IMG와 JUMP 협력계약 체결
	07월	국내최단기간 1,500회 공연
	11월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선정
	12월	**♣ Jump 영국왕실 로얄 버라이어티 쇼 한국최초 초청**
		♣ 대한민국 국회대상 (연극, 뮤지컬부문) 수상
		♣ 2006 혁신공연기획 대상 (한국관광평가연구원)
		♣ 2006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공연문화산업 부문(서울신문)
✓ 2007년	01월	♣ The Best Korea Awards 미래산업 핵심기업 대상
	02월	♣ 영국 웨스트엔드 피콕 극장 장기상설공연
	04월	♣ (주)예감 벤처기업 인증 선정
	05월	♣ 2007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스포츠서울)
	10월	**♣ ‘Jump' 뉴욕 브로드웨이 전용극장 오픈**
	11월	**♣ ‘Jump' 100만불 수출탑상 수상 (무역협회)**
✓ 2008년	05월	점프 부산 전용극장 오픈 예정

점프 동영상 클립



1. ㈜예감 및 “JUMP”소개

점프 동영상 클립



2. “JUMP” 상품개발 기획 및 전개

상품개발 아이디어

『 대한민국 No.1 브랜드는 태권도 』

■ 한국 무예의 위상

- 한국인 대부분이 태권도에 관한 자부심 소유
- 세계적으로는 정서적 신비감과 동양정신으로 인식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식종목 채택
- 세계 각 도시의 태권도 대회유지로 이한 대중화 기대
- 스포츠 마케팅 시대의 도래
- 년간 35회 이상의 국내외 공식 대회로 저변인구 확대

■ 마샬아츠 퍼포먼스(Martial Arts Performance)

태권도 퍼포먼스의 한계극복

- 태권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양무술 접목
  → 우슈(남권/장권/취권), 태껸 등

- 무술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위한
  체조 및 아크로바트 동작 접목
  → 직선적인 동작의 한계, 다양한 볼거리 빈약 등 보완

상품개발 목적 및 취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

무술을 소재로 한 ***Martial Arts Performance*** 의 제작으로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세계 공연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 확보 가능

조직 구성 및 전개과정 상 특이점

『 장기적 안목에 의한 R&D 조직 집중육성』

기존 공연산업 조직의 특징

공연기획과 공연제작의 분리형태가 일반적이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계약형태의 조직모델이 새롭게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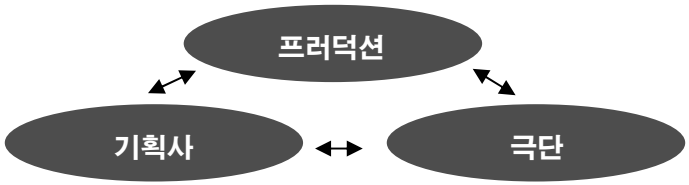
- 극단 : 컨텐츠 개발
- 프러덕션 : 프로젝트 별 이합집산
- 기획사 : 홍보와 마케팅

VS

㈜예감 조직의 특징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기술분야 R&D형태의 크리에이티브팀을 회사내부의 주요조직으로 육성

- 크리에이티브팀 : 작품개발(R&D)
- 프러덕션 팀 : 공연제작(생산)
- 마케팅 팀 : 수익창출(영업)
- 해외공연 팀 : 해외시장개척



3. “JUMP” 의 성공요인

3. "JUMP" 의 성공요인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문화상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Quality)이다 』

✓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활용

2004년	연출가 Robert Du Plesis –Ice Show 외 다수 업그레이드 작업 (2004.1~2004.3)
2005년	스페인 연출가 David Ottone –'666' 외 다수 업그레이드 작업 (2005.1~2005.3)
2007년	캐나다 코미디 연출가 크로우스즈 씨어터의 예술감독 업그레이드 작업 [2007.8]

문화일보

"박진감·코믹요소 가미 외국인도 즐길수 있게"

논버벌퍼포먼스 '점프' 수정맡은 오톤

‖ "서양인이 좋아하는 코미디 코드와 동양의 신비감을 함께 조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동양무술과 애크러배틱이 혼합된 논버벌 퍼포먼스극 '점프'의 쇼닥터(Show Doctor)로 한국을 방문 중인 스페인 연출가 데이비드 오톤(38·사진)은 "국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점프'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 2002년 '별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2003년 7월부터 현재 이름으로 공연되고 있는 '점프'는 오톤의 대폭적인 수술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서울 정동 세실극장에서 새 버전을 선보 … 예정.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퍼 … 먼스 홀에서 만난 그는 '점프' … 세부적인 면들을 일일이 들어 … 며 현재 수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큰 방향은 "마셜 아츠(Matial Arts)로서의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외국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첨가, 스피디한 코미디 공연으로 만들 것"으로 잡고 있다. 또 퍼포먼스극이니 만큼 출연진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키워주고 싶다는 것이 그의 생각. 현 출연진에 대해 "배우 재밌고 역량있는 배우들"이라고 치켜세운 오톤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표정이 살아 있어 코미디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정과정에서 "극의 30% 정도를 손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오톤은 "극의 기존 리듬에 변화를 줌으로써 박진감을 더하고 효과음의 성능도 개선, 대사없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번기자

편집=이창민기자 changlee@

경향신문

파란눈 두 연출가 '못말리는 한국사랑'

스페인 오톤
된장·김치찌개에 반해
'점프' 국제무대에 선봬

러시아 크라메르
문학·음악·미술에 매료
'태권도 퍼포먼스' 준비

태권도를 비롯한 동양무술에 심취한 서양인 연출가 2명의 작품이 잇따라 한국 무대에 선보인다.

5월 초연이 결정된 '태권도 넌버벌 퍼포먼스'(가칭)는 러시아의 명연출가 빅토르 크라메르가 연출을 맡았고, 2003년 7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코미디 무예퍼포먼스 '점프'는 스페인 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데이비드 오톤이 쇼닥터를 맡아 새롭게 국제무대에 진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바람을 기다리는 여섯사람'으로 1999년 영국 에딘버러페스티벌에서 프린지퍼스트를 수상한 바 있는 크라메르는 못말리는 '한국 마니아'다. 그가 '바람을…'을 들고 2003년 1월 한국을 처음 방문해 공연한 곳은 경기 연천의 작은 마을회관.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지원한 당시 지역 순회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크라메르는 동네 할머니들의 티없는 웃음과 박수에, 어떤 큰 무대에 작품을 올렸을 때 못지않게 감동을 받았다.

한국인들의 순수함과 친근한 호응이 '한국과는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준 것이다. 그 뒤로 몇차례 한국을 더 방문하면서 한국의 고전·현대음악에서부터 풍속화·인물화 등 미술,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관심가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하고 공부했다.

'점프'의 한 장면.

도 서적을 구입해 연구했다. 크라메르는 "특히 한국의 민간설화와 국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시작하는 전통적 고전들이 특히 인상 깊고 문화적으로 깊이가 있는 나라로 여겨진다"고 밝

그는 "정정당당함과 예절로 승부를 가리는 태권도의 정신적 아름다움을 서양에 선보이고 싶다"며 연출을 맡은 태권도 퍼포먼스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는 "정신적 자문을 위해 만난 문대성 선수를 보니 몸안에 조용한 별로

었다"면서 "컴퓨터 게임문화에만 익숙한 서양에 태권도의 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줄곧 한국 무술과 문화가 지닌 정신적 가치를 극찬했다. 크라메르는 기존의 아크로바틱 공연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환상과

국 시의 아름다움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등 서정적인 무대를 준비중이다.

세계 최초의 '무예 아트'(Martial arts)를 표방한 '점프'에 쇼닥터로 새롭게 결합한 데이비드 오톤의 한국 사랑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한국에 다녀간 뒤 3월부터 '점프'의 에딘버러페스티벌 진출을 위한 작품 각색에 들어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보쌈. 한국에 온 뒤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한국음식의 깊은 맛에 반해 서양음식은 손도 안댈 정도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한국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한국 기자 앞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톤은 처음 만나는 한국인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 '점프'는 태권도, 태껸, 우슈 등 동양무술을 조합해 아크로바틱 퍼포먼스로 제작한 코미디 공연.

세계적인 코미디 연출가이기도 한 오톤은 "동양무술의 신비로움을 서양인이 좋아하는 코미디 코드와 조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프' 제작진은 작품 속에 영화 '매트릭스'를 패러디한 동작을 끼워넣는 등 서양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코미디 요소를 대폭 덧붙여 해외진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오톤에 의해 업그레이드된 '점프'는 4월8일부터 서울 정동 세실극장에서 선보인다.

朝鮮日報

스페인서 왕진 온 '쇼 닥터'

코미디 연출가 오톤

스페인 '쇼닥터(Show Doctor)'가 한국으로 왕진(往診)을 왔다.

올해 5월 이스라엘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Jump·연출 최철기)가 유럽에서 활약해온 정상급 코미디 연출가 데이비드 오톤(David Ottone·39)을 초청해 공연에 대한 검진을 의뢰했다. '점프'는 무술 가족이 집에 침입한 도둑들과 벌이는 소동을 태권도·아크로바틱 등을 섞어 코믹하

5월 해외시장 본격진출
퍼포먼스 '점프' 검진
"성공한 공연 만들려면
他장르 장점 끌어와야"

게 그린 작품. 2000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히트한 '666' 등 20여편의 코미디극을 만든 오톤은 지난달 27일부터 3주 동안 세종문화회관 퍼포먼스홀에서 배우들을 지지고 볶으며 '점프'를 치료 중이다.

—환자('점프')의 상태는?

"7명의 가족 캐릭터가 밋밋하다. 더 또렷이 차별화 돼야 한다. 코미디는 또 타이밍이 생명이다. 조명과 음향 효과를 통해 분위기를 극대화해야 하고, 웃기는 대목에선 더 과장된 동작들이 필요하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까?

"'점프'는 강점이 많다. 동양 무예를 이용한 역동적인 코미디라는 것만으로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100점 만점에 65점 수준이다. 80점대로 올리면 유럽 시장에서도 통할 거다. 원래 난 점수가 짜다(웃음). 내 대표작들도 80점 정도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하나?

"난 만화에서 코미디 소재를 많이 얻는다. 플레이 스테이션을 통한 게임도 장면 구상에 도움이 된다. 공연이 동시대 관객들과 호흡하려면 영화 등 인기 있는 장르의 장점은 빨리 끌어와야 한다."

'점프'의 배우들과 공연을 다듬고 있는 쇼닥터 데이비드 오톤. 이명원 기자 (블로그)mwlee.chosun.com

—외국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려다 한국 공연이라는 색깔이 사라질까 걱정이다.

"좋은 유머는 어딜 가나 좋은 유머다. 내 임무는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편안하게 즐길 만한 코드로 이 공연을 손질하는 거다. 한국의 집안 풍경, 대가족 제도, 음악과 줄거리엔 손을 대지 않는다."

—20년 동안 코미디극만 만들었는데.

"웃는 관객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나도 좀 '웃기는' 사람이다." 공연 문의 (02)722-3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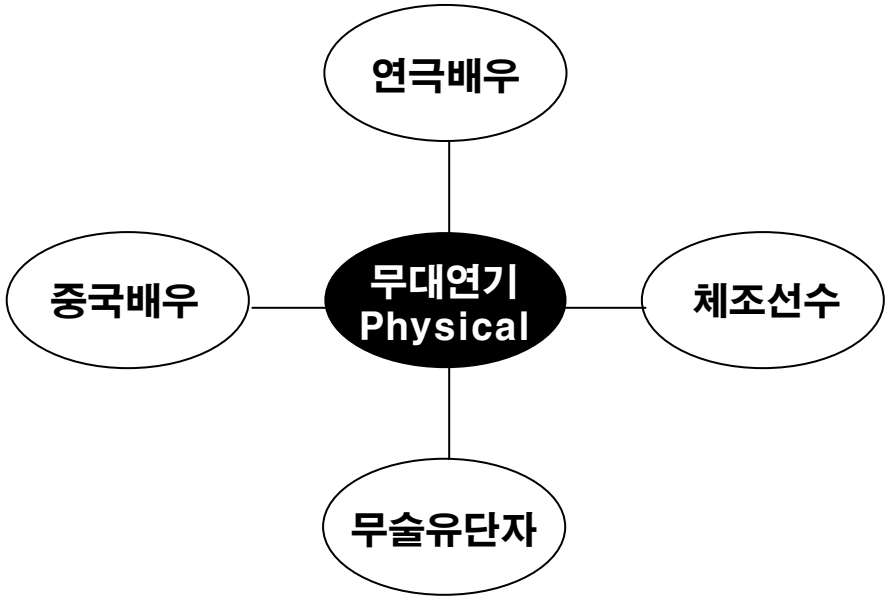
박돈규기자 (블로그)coeur.chosun.com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문화상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Quality)이다 』

✓ 핵심역량의 중심축인 배우 집중육성

JUMP 출연배우 육성



트레이닝 센터

1. JUMP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육성프로그램 도입

2. 연극배우를 중심으로 무대연기와 신체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의 인재로 확대

3. 공연이 요구하는 무술과 연기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중국인 배우를 통해 아시아 시장의 라이센스 공략 기틀마련

3. “JUMP” 의 성공요인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트레이닝 센터

체조, 아크로바틱 피지컬 등 기초적인 체력 훈련	배우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및 연기 트레이닝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팀 닥터 개념의 피지컬 테라피스트 구성

전문 배우 양성을 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전용극장과 더불어 문화복합공간 형성

우수한 공연의 Quality 확보

4. “JUMP”의 비전 및 향후 전략

4. “JUMP”의 비전 및 향후 전략

2015年

전세계 15개 이상의 프로덕션 구축
월드와이드 No.1제작시스템 구축
월드와이드 No.1 유통, 배급망 확보

2010年

공연 기획, 제작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아시아시장 No.1
동북아 시장 공략

2008年

국내 최고의 공연 기획사

2005年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정착

한국을 대표하는

Multi-Entertainment 기업

-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메가트랜드 대응
  (브랜드 파워 강화, 공연 분야 사업 역량 확보로 미래 사업 기회 창출)
- 공연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 사업
  (다양한 메가 컨텐츠 개발 및 유통, 배급망 확보/확대를 통한 고수익 창출)
- 공연 사업 관련 부가 사업 개발
  -(One Source Multi Use
  공연 관련 부대 사업 창출)

예술적 감수성

4. “JUMP”의 비전 및 향후 전략

점프 Business Plan

-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메가트랜드 대응 (2008년)
  :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공연 사업에 대한 역량 확보로 공연 기획, 제작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의 입지 강화
- 월드와이드 매가 브랜드 육성 및 대응
  : 메가 컨텐츠 확보 / 10개 프로덕션 구축 (2011년)
- 아시아 NO.1 공연제작사 및 세계 3대 공연제작사로의 역량 구축 및 연대 (2015년)

2003년
Martial Art Performance “Jump”
- 넌버벌 퍼포먼스 시장 런칭 (포지셔닝)
- 소구대상 분석

2005년
해외투어를 통한 전세계 무대진출
- 에딘버러 등의 해외 진출을 통한 작품 홍보 및 인정

2006년
“Jump” 서울 전용극장 설립
- 국내 전용관 설립 및 작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2007년
브로드웨이 전용극장 설립
- 월드와이드 시장메가대응
- 컨텐츠 바이블 구축

2008년
중국, 부산 전용극장 설립

2009년
런던, 일본 전용극장 설립

2011년
월드와이드 10개 이상의 프로덕션 구축

2015년
월드와이드 BIG 3 진입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4. “JUMP”의 비전 및 향후 전략

- 2015년 내 전세계 No.1 공연마켓 주도

- Martial Arts II 작품 런칭으로 라스베가스 시장 공략

- 공연 컨텐츠 한류 문화 확산 및 아시아 펀드 조성 기반 연계 및 구축

- 현재의 Jump 공연과 차기 작품을 연계한 동북아 거점 마련 및 시장 공략

- 2008년 기준 미래비전 15년 이상의 장기 롱런 구축

- 현재 국내 Open Run 공연 및 해외 3년 이상의 공연마켓 확정

감사합니다.

END